

# 교양영어 토익수업 사례연구:

## L2 화자의 문법적 오류 양상

윤소영\*

1. 서론
2. 토익 수업 운영실태
3. L2 화자의 문법적 오류 사례 분석
4. 토익수업 관련 설문조사 분석
5. 결론 및 제언

### ■ 국문요약

본고는 충청권 소재 4년제 대학인 K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영어 수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3학점 3시간 수업으로 구성된 교양영어 수업에서 3시간 중 1시간을 차지하는 토익수업의 비중을 특히 문법교육과 관련해 문법적 오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가 담당한 4개 반은 모두 신입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능 절대평가가 시행된 지 3년 된 상태여서 특히 문법 지식이 결핍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토익문제 풀이를 통해 비영어민으로써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학습하는 대상인 L2 화자의 문법적 오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부교수, sweetie33@daum.net

본 연구는 특히 고교 3년 간 코로나 창궐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만 진행했던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면수업과 플립러닝으로 비대면수업을 병행해 진행하면서 영어문법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정도를 파악하는데 근간을 둔다. 기초 필수 교양 교과에서 똑같은 교재로 운영하는 토익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문제 풀이 후 질문을 하게 하여 다양한 문제 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보았다. 즉 각 반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어떤 범주인가, 문제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면서 비원어민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문법적 오류는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흥미로운 점은 매 Unit마다 제공되는 총 15개의 실전 문제 중에서 각 반마다 공통적으로 질문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공통질문 4-5개를 추려서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결여되고 미진한 문법적 지식이 어떤 부분인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주안점이 있다.

**주제어** ● 교양영어, 토익, 영어문법교육, L2 화자, 문법적 오류, 효용성

## 1. 서론

교양교과 중에서 외국어 영역 중 영어 교과의 중요성이 날로 희박해지고 있다. 교양 교육의 꽃이라 불렸던 영어교과이지만 날이 갈수록 필수교과에서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점이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본 연구는 충북 소재 4년제 K대학의 1학년 대상 교양영어 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중 특히 토익수업에 집중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K대학의 교양영어 수업은 3학점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시간은 주교재를 활용하고, 1시간을 토익에 집중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K대학의 교양영어 수업은 KUGEP(Konkuk University General English Program)로 명명한 바, KUGEP1 듣기중심, KUGEP2 읽기중심, KUGEP3 말하기중심, KUGEP4 쓰기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KUGEP1은 교양필수교과여서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KUGEP2는 선택적 필수교과로 선수, 후수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어, 1학기에 KUGEP1과 KUGEP2를 단과대 계열별로 구분해 분반 수를 절반 정도로 산정해 동시에 개설하고 있다. 3학점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K1, K2와 달리 KUGEP3과 4는 심화교과 범주로 구분되며, 2학점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점이지만 3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업 중 1시간을 토익 학습에 할애한다는 맥락에서 그렇게 지정되었다. 네 교과 모두 학기 시작에 모의토익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학업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부족한 영어학습 역량을 진단하게 된다. 학기 중에 수업을 통해 토익에 대해 노출하게 한 후 14주 차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토익성적 향상이 어느 정도로 상향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시험에 의미를 두기 위해 영어능력향상도를 성적에 반영하고 있는 바, 전체 성적 배점 100퍼센트 중 20퍼센트를 부여하고 있다. 한문섭·황종배는 문법 교육의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느냐”(82)가 핵심적인 부분이라 지적하면서 『영어교육』에 실린 논문 중 교수방법론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고 주목한다. 그 결과치로는 1990년대에 문법에 관한 연구논문비율(2.99%)보다 2000년대 들어 4.01%로 평균적으로 3.14%를 차지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KUGEP1~4 네 과목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토익학습에 대한 특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수업인 KUGEP1 3개반과 KUGEP2 1개반은 모두 신입생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토익에 대한 인지, 학습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토익문제 풀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문법적인 학습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제 풀이와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4개반 모두에서 토익 수업을 위해 공통교재인 *All-in-One ToEIC Advancer*를 다루고 있는데,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수업 운영방식을 우선 살펴보겠다.

## 2. 토익 수업 운영실태

본 수업에서 필자의 토익 수업 운영은 (1) 단어시험, (2) 실전문제풀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단어를 우선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교재의 구성상 LC파트와 RC파트 각기 12개씩의 Unit으로 짜여져 있는데, 수능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문법적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RC파트 12개 Unit을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설계하고 있다. LC파트는 12~13주차에 형성평가를 대비하며 집중몰입교육으로 진행한다. LC/RC 각 과에는 40개씩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토익시험을 준비하는데 요구되는 2천 단어 암기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단어 학습 후 퀴즈를 치루도록 하고 과제 점수 15점 중 5점을 단어평가로 반영한다. 즉 매주 단어 암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어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어학습을 위해 매시간 간단한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단어 시험을 치루기 전에 RC파트의 40개 단어를 수업 중에 학습시킨 후 그중 5개의 단어를 지정해 시험을 보게 한다. 단어 읽기와 발음, 철자와 품사 및 파생어에 이르기까지 특정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수업 때 40개의 단어를 학습한 후 교수자별로 배정된 수업 별 온라인 학습방인 TLS(Teaching and Learning System)에 장착된 퀴즈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글로 뜻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시작하였다. 그 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문항 수를 2개 더 늘려 진행했는데, 한글 뜻을 제시하고 영어단어를 쓰게 하였다. 이 부분은 쓰기 훈련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단어 검색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직접 단어를 쓰는 기회가 별로 없다. 단어 쓰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래에 들어 철자에 유독 약해진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단어를 쓰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단어 시험을 치른 후 학생들에게 2분간 시간을 주고, 수업 현장에서 9~15번까지의 문제를 시간 내에 풀게 하였다. 총 15개 문항 중에서 1~8번까지의 문제는 미리 풀어오도록 유도하였다. 문제 풀이 후 학생들에게 틀린 문제 위주로 질문을 하게 하였다. 특히 문제 풀이 설명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1~15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질문을 받았다. 각 반에서 질문한 문제 중 특히 특정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질문이 발생한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 본다.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공통된 질문이 이루어진 이유는 학생들에게 주로 약한 문법적 부분이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문법적 이해에서부터 내용이해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수업 진행 시 활용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설명 후 수업에서 제공한 특이사항은 학생들이 스스로 출제자가 되어 그 문제를 응용하여 출제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여기서도 학생들은 본인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래 집단에서 내는 문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도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시도는 교수자의 설명 방식을 자신들에게 대입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문제를 출제하게 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효과는 문제유형 및 출제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사 문제풀이 또는 적용할 문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주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문제를 출제하는 경험은 문법설명이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제에 대한 명시적 이해와 암시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다소 질문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이 질문을 함으로써 수업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역으로 교수자가 학생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하였고, 질문의 문항 수가 최소 5개는 되어야 한다고 정해주고 난 후,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초기에는 질문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망설이기도 하였으

나, 주차가 거듭되면서 각 Unit당 10개 정도까지 질문의 양도 대폭 늘어났다. 특정 품사를 다룬 Unit에서는 문제 전체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진행할 정도로 품사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는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문제 풀이 과정이다. 총 5개의 Unit에서 다룬 품사는 다음 장에서 다룬 예시와 같다. 다음 장에서는 학생들의 질문을 예로 들어 수업 시간에 행해진 설명 부분을 곁들이면서 문법적 오류 및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안을 덧붙임으로써 학습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3. L2 화자의 문법적 오류 및 사례 분석

“보편 문법의 결속원리를 의식적으로 학습한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집단보다 원리 적용 능력이 뛰어났다”(한종임, 1998)

보편문법의 학습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한종임의 입장과 관련해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시작점이다. 마찬가지로 책의 목차를 통해 문법적 지식이 어떤 순서로 습득되어야 하는 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교재의 RC 파트 구성에 대해 우선 간단히 살펴보겠다.

- Unit 1구, 절 및 문장구조
- Unit 2동사의 종류 및 시제
- Unit 3명사, 한정사 및 대명사
- Unit 4형용사
- Unit 5부사
- Unit 6전치사
- Unit 7to 부정사
- Unit 8동명사

Unit 9분사와 동사의 태

Unit 10 명사절 및 형용사절 접속사

Unit 11 부사절 접속사

Unit 12 비교/ 가정법/ 도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각 Unit별로 3~4개의 문제에 집중해서 설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전 문제를 살펴보았다. 아래는 4개 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문제에 대한 풀이 및 설명을 제시한 것이다.

Unit 1 구, 절 및 문장의 구조
<p>9. One of the foreign bidders _____ our company a deal worth about five billion dollars last Friday.            (A) offered (B) made (C) remained (D) provided            4형식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이 'provided'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나 전치사가 없으므로 'offer A B'를 선택해야 맞는 문제이다. → 제안: 4형식 동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예문을 연습하게 함</p>
<p>10. KB Technology finally _____ the world's third largest IT company in terms of market capitalization, the total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A) sold (B) became (C) merged (D) considered            "I became a student."처럼 2형식 문장(SVC)에 쓰이는 동사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문장이 길고 토익 관련 단어가 많이 제시되어 있어 단어습득이 미약한 학생의 경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이다. → 제안: 토익 기본 단어습득을 하도록 유도하고, 문제 풀이 전에 각 Unit 별 단어학습을 함으로써 문제풀이 시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도록 한다.</p>
<p>11. All contracts must be _____ reviewed by our in-house lawyers in the legal department before they are signed.            (A) rigor (B) rigors (C) rigorous (D) rigorously            문장의 뜻이 닿는 경우,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품사는 부사이다. → 제안: 제시된 단어의 품사를 정확히 안다면 각 단어를 대입해보면서 풀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어 암기 시 품사를 확실하게 인지하는게 중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p>
<p>13. Sales representatives always need to keep their customers ----- and aware of what is</p>

happening.

(A) inform (B) informed (C) informative (D) information

inform의 두 가지 형용사 ‘informed’와 ‘informative’의 뜻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 제안: 수업 중에 ‘-tive’라는 접미어가 “full of sth”의 뜻을 갖는다고 설명하였고, ‘(정보가 풍부해서) 유용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임을 숙지시켰다. ‘informed’는 ‘알고 있는’의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keep O 형용사’로 쓸 때 필요한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 Unit 2 동사의 종류와 시제

6. Dr. Lisa Neilson \_\_\_\_ for 15 years as a physician f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y the time she retires next week.

(A) serves (B) has served (C) had served (D) will have served

‘trigger words’인 ‘next week’과 시간을 나타내는 ‘by the time’은 부사절을 이끄므로 ‘retires’처럼 현재형 동사를 써서 미래시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해야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동사의 시제 중 미래완료 활용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 제안: 특히 ‘by the time’이 그때까지 완료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완료시제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가령 ‘5월이면 중간고사가 끝났을 것이다’처럼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10. Mr. Edward Finch, the sales manager of the company, \_\_\_\_\_ for his contribution and dedication to the increase in profits at an award banquet this Thursday.

(A) is honored (B) has been honored (C) had been honored (D) will be honored

동사의 시제 문제는 어렵고 확연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한국어의 시제와 영어의 시제 활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맥상 ‘this Thursday’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므로 미래의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미래시제를 선택해야 맞는 답이다. → 제안: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지시 형용사가 합쳐지면 부사구를 형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문맥이해를 위해 내용에 대해 파악하도록 유도함

11. It’s expected that the sales of famous foreign brands at the top-three department stores \_\_\_\_ by the end of this year.

(A) triples (B) tripled (C) has tripled (D) will have tripled

‘be expected’가 쓰였으므로 미래 시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by the end of this year’ 구문이 있으므로 미래 완료 시제를 써야 한다. → 제안: by ~ 구문이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라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게 함

14.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_\_\_\_ a meeting with some international economic



experts from the WEF next Friday.

(A) hold (B) held (C) is holding (D) will be held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be + ~ing'를 쓰고,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니 만큼 D번처럼 수동태를 쓴 함정을 피해야 한다. → 제안: 수동태를 쓰는 경우 주어가 직접 행하는 것인지, 동작을 받는 쪽인지를 대입해서 접근하게 함.

### Unit 3 명사, 한정사 및 대명사

7. \_\_\_\_ factor influencing our export volumes and profitability is the recent raise in exchange rates.

(A) Another (B) Plenty of (C) Each (D) A number of

another는 an+other이므로 '또 하나'의 뜻을 가진 부정대명사이거나 부정형용사로 쓰인다. 주어인 'factor'는 셀 수 있는 명사이고 단수이므로 복수 명사를 취하는 'plenty of'나 'a number of'는 답이 되지 않는다. (A)나 (C)는 단수를 취하지만 맥락상 'each'는 답이 아니다. → 제안: another의 활용에 대해 문장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쓰임의 다양성 역시 예문을 통해 숙지시키도록 함.

10. Last month's accounting seminar was the most successful one so far with more than 500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_\_\_\_.

(A) attend (B) attendants (C) attendees (D) attendance

명사의 활용에 관한 문제이다. 형용사구를 만들 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attend'의 명사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고,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한다는 것 즉,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가 필요하다는 문법적 지식이 기반되어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제안: 품사를 정확히 아는 훈련이 요구되므로 유사형태의 명사형 만들기를 수행하게 함.

12. Employees working at the branch office in Berlin occasionally travel to \_\_\_\_ major cities in Europe such as London, Paris and Rome.

(A) other (B) others (C) another (D) each other

수량 형용사의 활용에 관한 문제이다. '다른'의 뜻을 가진 단어 'another'는 an+other이므로 '또 하나'의 뜻을 가진 부정대명사이거나 뒤에 단수 명사를 취하는 부정형용사이다. other와 another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other와 others의 차이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other는 형용사로 '다른'의 뜻이지만, 'others'는 'other people' 즉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므로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과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each other'의 의미는 둘 간에 쓰고 '서로'라는 의미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적절치 않은 답이다. → 제안: 수량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 예문 만들기를 시도하게 함.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선에서 예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지시킴.

13. Domestic exporters need to enhance their competitive edge through deeper cost cuts and stricter \_\_\_\_\_ control.

(A) qualify (B) qualified (C) qualification (D) quality

이 문제는 복합명사의 활용에 관해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품질관리’라는 용어를 정확히 구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복합명사를 만들 때 ‘단수명사+단수명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문법적인 사항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 틀린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 제안: 단수명사+단수명사로 구성되는 복합명사의 예를 문제로 풀게 할 필요가 있음.

14. Due to careful \_\_\_\_\_, the company’s profits grew nearly 15% even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plan (B) planning (C) planned (D) planner

이 문제는 ‘plan’과 ‘planning’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plan’은 단수 명사로 계획이라는 뜻인 반면, ‘planning’처럼 동명사형이 될 때에는 ‘기획’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plan’이 동사일 때 ‘계획을 짜다’인 경우 과거분사 형태인 ‘planned’는 ‘계획된’의 뜻이고, ‘계획자’라는 명사의 의미인 ‘planner’ 역시 많이 쓰이는 단어이므로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 제안: 단어를 직접 써보고, 문장 속에 활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함. 인터넷 사전을 활용해 문장을 만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Unit 4 형용사

10. Apple Electronics, one of the leading global companie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recently introduced \_\_\_\_\_ high-tech products to satisfy both domestic and foreign consumers.

(A) variable (B) various (C) variety (D) variation

‘high-tech products’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필요한 문장이다. ‘vary’의 활용에 대해 설명 하여 (C)와 (D)에 제시된 명사형의 의미 차이와 ‘variable’은 형용사면서 명사라는 점을 강조해준다. ‘various’라는 형용사는 ‘a variety of’로 쓸 수 있다는 것도 부연 설명해준다. → 제안: 형용사가 쓰이는 문장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됨. vary의 파생어를 연습하게 하여야 함.

12. The economy of some developing nations, which is heavily \_\_\_\_\_ on exports, is very vulnerable to economic shocks from outside.

(A) depend (B) dependency (C) dependent (D) dependable

‘depend on sth’은 ‘~에 의존하다’라는 뜻이고, 동사 ‘depend’와 등가인 ‘be dependent’를 써서 문장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depend’의 형용사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문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제안: 단어의 품사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품사별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장 연습 또는 단어쓰기 연습을 수행하게 함.

14. As the current growth figures are \_\_\_\_ with the initial estimates in January, it shouldn't be difficult to achieve the projected annual growth of 4 percent.

(A) responsive (B) relevant (C) consistent (D) familiar

숙어처럼 외우고 있을 때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be consistent with'를 써서 "~에 상응/부합하다"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 제안: 빈번하게 쓰이는 숙어에 대해 제시해주고 예문 만들기를 수행하게 함.

15. The difficult phase of doing translation is to make target material \_\_\_\_ to native speakers as well as those who are bilingual.

(A) comprehend (B) comprehensive (C) comprehensible (D) comprehending

사역동사의 활용에 대해 확인하는 문제이다. 'make O 형용사'를 써서 목적어가 형용사하다는 뜻을 이루게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 제안: 사역동사를 통해 문장만들기를 수행하게 함. 틀린 문장을 제시하고 맞게 고치는 시도도 쉽게 문장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 Unit 5 부사

2. The equipment has been lined up to \_\_\_\_ comply with the production workflow in our modernized plant.

(A) perfection (B) perfectly (C) perfecting (D) perfect

'to 부정사' 가운데 부사를 넣어 수식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부사의 위치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혼동을 하곤 한다. → 제안: 수업 시간에 설명한대로 부사 활용 규칙을 소리내어 연습하게 함.

5. With the abolition of tariff, the purchase price of a compact car will be reduced by \_\_\_\_ 2,600 euros.

(A) much (B) frequently (C) mostly (D) approximately

뒤에 숫자가 제시될 때, '대략'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제안: '대략'의 뜻을 가진 부사는 많이 쓰이는 편이므로 다양한 부사형태를 연습하게 함.

9. Our senior accountant tries to respond as \_\_\_\_ as she can and clarify the parts that don't seem to match up.

(A) clear (B) clearer (C) clearly (D) more clearly

동등비교 구문 'as~as'에 들어갈 원급의 형용사나 부사를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

이다. → 제안: 형용사,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 활용을 예문을 통해 옆사람에게 설명하게 유도함.

11. If this clinical trial for new medicine is successful, we can destroy harmful bacteria or viruses \_\_\_\_\_ more easily, curing almost all diseases.

(A) many (B) much (C) quite (D) very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much, even, far, still, a lot’을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제안: “Very good!”과 “Much better!”를 짝꿍에게 소리내어 말하게 함으로써 눈이 아닌 소리와 입으로 기억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게 함.

이처럼 다양한 문법적 지식에 있어 미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질문이었다고 본다. 중간고사 범위까지 총 5개 과를 다루었기에 절반에 미치지지는 못했으나 밀도있게 다루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은 꼼꼼하게 문법적 지식을 쌓은 상태가 아니었고, 대략적으로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수준 정도에 머물러도 된다고 생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토익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는 꼼꼼한 문법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음 장에서는 네이버 폼을 활용한 설문 조사를 통해 토익 수업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였다. 수업 전반에 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플립러닝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좋았던 점, 더 요구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주관식 문항도 첨부해 질문을 제시하고 직접 쓰게 하였다. 설문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4. 토익수업 관련 설문조사 분석

“영어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부분”임은 “어떻

1) Lage, Platt & Treglia (2000)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학습 유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플립러닝의 효용성을 강조한다.

게 지도해야 하는가”(Ellis, 2006)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서소담 138). 문법 교육을 위해 문제 풀이를 시행한 이 수업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문을 제시했다. 수업에서 이루어진 문법 관련 질문 중 4개 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 풀이와 관련해 묻고 답하는 설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상을 시청한다.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					
수업에서 문법 설명 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수업 후 여전히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은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한다.					
수업 후 복습을 한다.					

\* 주관식 질문: 이 수업에서 문제풀이와 관련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쓰시오.

\*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에는 수업 중 해결, 또래나 선배에게 개인적으로 묻기, 학교 내 비교과수업 활용, 학원수강 등이 있다.

수업 중 이루어지는 문법설명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문법을 숙지하고 본 수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에 녹화해둔 문법설명 부분을 미리 TLS에 올리고 자율적으로 시청하게 하였다. 3시간 수업이지만 주교재 설명과 부교재 문제 풀이로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40분에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설명을 보다 꼼꼼하게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다.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부족한 문법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쪽으로 유도하였다. 영상 참여 부분이 출석으로 반영되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청하게 하였고, 출석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

상을 미리 보고 오는 플립러닝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수업 중에 설명을 듣는 쪽을 선호하였다. 23학번의 경우 고교 3년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던 터라 플립러닝에 익숙할 것이라 예상한 것과는 달리 대면 수업에 대해 더 적극적임이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확연하게 드러난 점은, 현장에서 문제 풀이를 통해 직접 문법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점진적으로 실전 문제 풀이 직전에 문법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더니, 학생들의 집중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문법 교육이 명시적인가 암시적인가? 명시적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연역적 방법, 암시적 방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귀납적 방법(Doughty & Williams, 1988)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간고사까지의 범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수업에서는 단어 학습을 토대로 반영된 실전 문제 풀이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과인 KUGEP1과 2는 3학점 3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시간이 토의교재로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토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문제유형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정했다. 특이한 점은 각기 다른 반에 속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사 부문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각 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질문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비원어민인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문법적인 어려움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보고,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분석 범위를 중간고사 이전으로 한정함으로써 전체 내용을 담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사의 시제 및 종류, 명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 등 기능어 중심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이 무엇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총 참여 학생은 102명으로 단과대학별로 구분한 것과 성별로 나누어 구분한 설문지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단과대학별

### 1)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 시청한다

단과대학	수업1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8 15%	15 28%	22 41%	5 9%	4 7%	54 100%
디자인대학	0 0%	2 50%	2 50%	0 0%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4 12%	9 27%	13 39%	6 18%	1 3%	33 100%
과학기술대학	1 9%	7 64%	1 9%	2 18%	0 0%	11 100%
전체	13 13%	33 32%	38 37%	13 13%	5 5%	102 1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별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을 시청한다’라는 설문항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chi^2 = 11.583$ ,  $p\text{-value} = .480$ ). 하지만 전체적으로 37%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18%(그렇다 13%, 매우 그렇다 5%)의 학생들이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각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생들은 16%(그렇다 9%, 매우 그렇다 7%)의 학생들만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하였고, 의료생명대학 학생들 중 21%(그렇다 18%, 매우 그렇다 3%)의 학생들이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하였다. 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은 18%의 학생들이 수업 전에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하였다.

2)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

단과대학	수업2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0 0%	4 7%	15 28%	25 46%	10 19%	54 100%
디자인대학	0 0%	1 25%	1 25%	2 50%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1 3%	3 9%	12 36%	13 39%	4 12%	33 100%
과학기술대학	0 0%	1 9%	2 18%	8 73%	0 0%	11 100%
전체	1 1%	9 9%	30 29%	48 47%	14 14%	102 100%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의 설문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X^2 = 9.484$ ,  $p\text{-value} = .661$ ). 하지만 전체적으로 29%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61%(그렇다 47%, 매우 그렇다 14%)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각 단과대학별 살펴보면,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생들은 65%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약 50%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의료생명대학 학생들은 약 51%의 학생들이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대학 73%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문법 설명을 미리 보고 오는 것보다 수업 중에 문제 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과대학	수업3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9 17%	18 34%	15 28%	4 8%	7 13%	53 100%
디자인대학	0 0%	2 50%	0 0%	2 50%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4 12%	9 27%	13 39%	5 15%	2 6%	33 100%
과학기술대학	1 10%	6 60%	3 30%	0 0%	0 0%	10 100%
전체	14 14%	35 35%	31 31%	11 11%	9 9%	102 100%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설문항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chi^2 = 16.176, p \text{ value} = .183$ ). 전체적으로 20%(그렇다 8%, 매우 그렇다 13%)의 학생들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디자인 대학의 학생들 50%도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의료생명대학 학생들 약 21%(그렇다 15%, 매우 그렇다 6%)가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은 0%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업 중에 문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 문제 풀이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문법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문제 풀이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4)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익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단과대학	수업4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3 6%	15 28%	21 39%	12 22%	3 6%	54 100%
디자인대학	0 0%	0 0%	3 75%	1 25%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4 12%	2 6%	14 42%	10 30%	3 9%	33 100%
과학기술대학	0 0%	3 27%	5 45%	3 27%	0 0%	11 100%
전체	7 7%	20 20%	43 42%	26 25%	6 6%	102 100%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익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설문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X^2 = 11.734$ ,  $p \text{ value} = .467$ ).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 31%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익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42%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생들 중 28%, 디자인 대학 학생들 약 25%, 의료생명대학 학생들 39%, 과학기술대학 학생들 27%가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익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5) 수업 후 여전히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은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한다

단과대학	수업5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3 6%	7 13%	20 37%	19 35%	5 9%	54 100%
디자인대학	0 0%	0 0%	0 0%	4 100%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1 3%	10 30%	12 36%	7 21%	3 9%	33 100%
과학기술대학	1 9%	3 27%	2 18%	3 27%	2 18%	11 100%
전체	5 5%	20 20%	34 33%	33 32%	10 10%	102 1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chi^2 = 15.890, p \text{ value} = .196$ ). 하지만 전체적으로 33%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42%의 학생들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수업 후 여전히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은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생들은 ‘보통이다’가 37%, ‘그렇다’ 35%, ‘매우 그렇다’가 9%로 나타났고,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1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의료생명대학 학생들은 약 66%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업 후 여전히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은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대학 학생들도 ‘보통이다’가 18%, ‘그렇다’가 27%, ‘매우 그렇다’가 18%로 약 63%의 학생들이 수업 후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을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수업 후 복습을 한다

단과대학	수업6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2 4%	5 9%	24 44%	20 37%	3 6%	54 100%
디자인대학	0 0%	0 0%	1 25%	3 75%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2 6%	6 18%	18 55%	7 21%	0 0%	33 100%
과학기술대학	0	2	8	1	0	11

	0%	18%	73%	9%	0%	100%
전체	4 4%	13 13%	51 50%	31 30%	3 3%	102 100%

수업 후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수업 중에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을 상기하는 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본다.

### 7)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단과대학						전체
	수업 중 질문	또래나 선배	비교과수업	학원수강	기타	
인문사회융합대학	6 11%	21 39%	6 11%	1 2%	20 37%	54 100%
디자인대학	2 50%	1 25%	0 0%	0 0%	1 25%	4 100%
의료생명대학	3 9%	11 33%	2 6%	3 9%	14 42%	33 100%
과학기술대학	2 18%	4 36%	0 0%	0 0%	5 45%	11 100%
전체	13 13%	37 36%	8 8%	4 4%	40 39%	102 100%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또래나 선배에게 묻는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 (2) 성별

### 1)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 시청한다

성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9 15%	18 29%	23 37%	10 16%	2 3%	62 100%
여자	4 10%	15 38%	15 38%	3 8%	3 8%	40 100%
전체	13 13%	33 32%	38 37%	13 13%	5 5%	102 100%

### 2)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

성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1 2%	5 8%	18 29%	30 48%	8 13%	62 100%
여자	0 0%	4 10%	12 30%	18 45%	6 15%	40 100%
전체	1 1%	9 9%	30 29%	48 47%	14 14%	102 100%

### 3)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성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10 16%	21 34%	22 35%	5 8%	4 6%	62 100%
여자	4 11%	14 37%	9 24%	6 16%	5 13%	38 100%
전체	14 14%	35 35%	31 31%	11 11%	9 9%	100 100%

4)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익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성별	수업4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4 6%	11 18%	26 42%	17 27%	4 6%	62 100%
여자	3 8%	9 23%	17 43%	9 23%	2 5%	40 100%
전체	7 7%	20 20%	43 42%	26 25%	6 6%	102 100%

5) 수업 후 여전히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은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한다

성별	수업5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5 8%	16 26%	21 34%	16 26%	4 6%	62 100%
여자	0 0%	4 10%	13 33%	17 43%	6 15%	40 100%
전체	5 5%	20 20%	34 33%	33 32%	10 10%	102 100%

여기서 여학생들의 경우 복습을 위한 동영상 시청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6) 수업 후 복습을 한다

성별	수업6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3 5%	8 13%	35 56%	14 23%	2 3%	62 100%
여자	1 3%	5 13%	16 40%	17 43%	1 3%	40 100%
전체	4 4%	13 13%	51 50%	31 30%	3 3%	102 100%

수업 후 복습 부분도 여학생들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7)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성별	수업7					전체
	수업 중 질문	또래나 선배	비교과수업	학원수강	기타	
남자	11 18%	17 27%	7 11%	3 5%	24 39%	62 100%
여자	2 5%	20 50%	1 3%	1 3%	16 40%	40 100%
전체	13 13%	37 36%	8 8%	4 4%	40 39%	102 100%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수업 중 문제설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소 수동적으로 보일 정도로 여학생들의 참여가 낮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L2화자들은 영어문법 형태소 습득에 있어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간의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비슷한 상대적 정확도 프로파일을 보인다고 주장한 이종근(92)의 입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문법적 지식의 증대를 위해 효용성이 확보되는 것은 설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업 중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고 풀이를 시행해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해설집이나 번역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재차 설명을 듣고 싶은 학생을 위해 영상 강의도 탑재함으로써 반복적 문법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즉 “언어 습득과 문법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Ellis(2006)의 이념에 의해 문법 교육의 방향이 조정되었”(서소담 154)다는 부분과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여전히 교양교육에서 딜레마는 학문 자체에 대한 학습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과 졸업 후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취업과 관련된 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어교육에서 실용과 영어 자체에 대한 학습 중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염려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3시간 수업에서 2시간은 영어학습 영역에 충실한 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을 토익에 할애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단어 학습 및 테스트 후 문제풀이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문법적 지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과 동시에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는 문제가 문법적 지식이 미약한 지점이라는 점에 착안해 사례를 모아 보았다. 절대평가로의 전환 후 학생들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등에 대해 매우 미약한 역량을 보였다. 문장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에 문장의 형식을 정확히 알고 옆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할 따름이었다. 다양하고 일률적이지 않은 문법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문법적 지식을 쌓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할 것이라 본다. 문법을 귀찮고, 할 것이 너무 많기만 한 부담스러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언어활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문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더 절실하다고 본다. 제 2외국어로서의 언어 습득에 있어 문법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단어 습득에서부터 시작해서 읽기가 기본이 되어야하는 영어교육에 있어 문법의 중요성은 문법 효용성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학생에 대해 개별적으로 본인들에게 부족한 바가 어떤 부문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개별적인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면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연구의 특이점인 공통적 오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진행하는 수업에서 문제마다 어떤 답을 선택하여 틀렸는지에 대한 설문을 매시간 시행한다면 보다 밀도높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설문 조사에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경우 강의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단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후 검증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서소담·김정렬. “영어 문법 교육에 관한 역사적 고찰: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어교과교육』 19(2), 2020: 137-157.
- 이종근. “L2 화자의 영어 문법 형태소 습득 유형에 대한 연구”, 『21세기영어영문학』 1, 2008: 90-97.
- 이혜련. “플립러닝을 활용한 대학 영어문법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미래영문학』 12, 2018.
- 한문섭·황종배. “한국 영어 문법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영어교육』 70(5), 2015: 81-108.
- 한종임. “한국인의 영어습득과정에 작용하는 보편문법의 역할 연구”, 『영어교육』 48, 1994. 101-126.”
- Doughty, C & Williams, J.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88.
- Ellis, R. “Current issues in the teaching of grammar: An SLA perspective.” *TESOL Quarterly*, 40(1), 2006: 83-107.
- Lage, M. J., Platt, G. J., & Treglia, M. “Inverting the Classroom: A Gateway to Creating an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31, 2000: 30-43.

## **A Case Study on Learning English Grammar and L2 Speakers' Common Mistakes in Solving ToEIC Questions**

Yoon, So Young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aspects of students' common mistakes in solving ToEIC questions at K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Students are L2 speakers. Classes are comprised with three hours: two-hour for the main text and one-hour for preparing the ToEIC. That is, it could be to conduct classes faithful to the English learning area for two hours in a three-hour class and to devote an hour to ToEIC. There are four classes that I was in charge of teaching. These classes have in common: one-third of them students should pay attention to ToEIC learning. Most of all, students should know more words related to the ToEIC as possible.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class operation method, tried various methods to increase students' grammatical knowledge through word learning and post-test problem-solving processes, and gathered cases based on the fact that students of the same grade commonly ask questions. If we conduct a questionnaire every hour on what answers we choose for each question in the future class, we will be able to find more dense problems. However, students' particip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f they spend a lot of time on the survey, it is clear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concentrate on the lecture, so it may be better to proceed in a post-verification manner.

**Keyword** ● general English, Toeic, English grammar instruction, L2 speakers,  
grammatical errors, efficacy

▮ 논문투고일 : 2023. 06. 07. ▮ 심사완료일 : 2023. 06. 15. ▮ 게재확정일 : 2023. 06. 16.